

**대중문화와 CCM:**  
**현대 예배 찬양의 성경적 방향 고찰**  
**Popular Culture and CCM:**  
**Toward a Biblical and Contemporary Worship Praise**

서나영 (Na Young Seo)

I. 서론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을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의 백성은 영원하신 삼위 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엡 1:6)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슨의 “예배는 교회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열정과 목적”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닐 것이다(Allison, 2012: 431). 신약 성경 시대 사람들의 예배에서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회중 예배의 본질과 요소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 핵심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신학의 예배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예배운동(Liturgical Movement)을 시작으로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긴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지나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중 예배를 이루는 불변하는 요소들인 설교, 기도, 찬례, 성찬, 찬송 등은 변함없이 그 자리들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불변의 요소들은 수많은 지역과 문화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풍습과 표현은 늘 새로이 기독교 예배에 적용되어 변화해 왔으며, 이는 개혁주의 교회도 예외일 수 없었다. 미국의 역사 신학자 화이트(James White)는 예배와 예전의 역사를 다루었던 그의 책의 결론 장에서, “예전은 신성하게 제정된 불변의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 요소들은 변화 될 수 있다. 이것들은 예전의 내적 본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의 침입으로 고통 받거나 부적절하게 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만 할 뿐 아니라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예전에 관한 원칙을 선포했다(White, 1993: 178). 즉, 변화는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개혁주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화이트는 1990년대에 그 책을 썼던 시대적 관점에서 회중 예배 안의 불변의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기독교 예배가 끊임없이 변할 것이라고 예견했다(White, 1993: 179). 그리고 그 불변의 요소 중 ‘회중의 노래와 음악’은 그 변화의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가장 유연하고 변화가 불가피하며 필요했던 예배의 핵심 구성요소로 본 논문은 이 예배 안 회중 찬양을 다룬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회중 예배 안에서 예술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왔으며 예술이 예배를 표현하는 문화적 스타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도록 역사를 이끌어 왔다. 초창기 개혁주의 교회는 그들의 예배에서 예술적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었고 이를 환영하지 않았다. 17세기 청교도들은 찬송가를 금지하고 오직 운율이 있는 시편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경건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고, 로마 카톨릭의 복잡한 성부와 선율로 이루어진 라틴어의 성가를 배격했다. 쉽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만한 적당한 멜로디의 선율로 찬양하며 음악을 끊임없이 견제했지만, 예배 안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 안 주님을 찬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개혁 교회와 장로교에 의해 창안된 예배의 규정적 원칙(Regulatory Principle of Worship)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21.1)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상상력에 의한 인간의 개인적 계시의 방법에 따라 예배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명시했다. 즉, ‘오직 성경’에서 확실하게 발견되는 특정한 요소들로 예배의 공공 예식을 정하는 원칙으로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모든 다른 관습들을 금지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이는 음악 외에 예배 안 무용과 시각 예술, 그리고 필요 이상의 예술적 요소는 견제하고 금지함을 의미한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뿐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벨기에 고백,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에 포함된 근본주의 또는 개혁주의 예배의 근본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개혁주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칙의 권위성에도 불구하고, 교회 회중 예배 안의 찬양이 젊은 층의 예배를 중심으로 현대 기술과 음악 스타일에 크게 문을 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예배의 규정적 원칙과 반대되는 개념인 ‘예배의 규범적 원칙(Normative Principle of Worship)’에 의한 것으로 이는 루터파에 의해 제정되었고 성경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예배의 원리이며, 교회가 동의하는 아래 모든 문화적 관습과 요소가 예배에 허용된다는 예배 원칙이다. 19세기의 부흥운동에 회중 찬양 안의 성령의 역사가 부각되어 강조되며 교회는 음악에 보다 더 큰 접근성을 가지고 고전 찬송가에서 크리스찬 락(Rock Music)과 EDM(Electronic Dance Music)에 이르기까지, 또한 유럽의 칸타타에서부터 남아프리카 흑인 소울 합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에 개방성을 보여왔다. 이 뿐만 아니라, 젊은 층 예배를 중심으로 금기시 되었던 예배 찬양 안의 댄스, 영상, 그리고 그 외의 대중문화로부터 영향 받은 문화적 부산물들까지 받아들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성의 포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반영하고 문화적 접근으로 복음 전파를 하는 문화 선교의 긍정적 관점이 있지만, 음악의 다양성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교회의 음악 사역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더 큰 분별력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찬양했지만 이 예배 찬양의 방법과 수용의 근원인 대중문화는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많은 방향으로 침투해있는 반기독교적 문화적 요소들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대 예배 찬양과 그의 문화에 대하여 신학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올바르게 견고하는 회중 찬양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성경적 원칙들을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첫 장에서는 예배 안 회중찬양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의 방법의 기초를 다진다. 두 번째 장에서는 현대 예배 찬양에 주를 이루는 음악 스타일에 대한 신학적 관점들을 살펴보고 대중음악 문화의 많은 부분을 수용한 현대 예배 찬양 음악과 문화가 직면한 과제를 도출함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네 가지의 성경적 이론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많은 것을 여과 없이 수용한 현대의 예배 찬양 음악과 문화를 성경적 신학적 렌즈로 투과하여 분별하고, 무지한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찬양 문화의 이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II. 현대 예배 찬양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조망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예배 안에서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하고 수많은 음악장르들을 수용함에 있어서 성경 안에 나타난 예배 찬양의 본질을 종합하여 사유하고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을 지나 현대의 예배찬양이 오기까지 역사의 조망을 살피는 것은 기독교 예배와 찬

양의 성경적이고도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다. 미국의 예배학자이자 저명한 찬양 인도자인 코플린(Bob Kauflin)은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예배 찬양 역사를 정리하며 그 유익에 대하여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는 성경으로 시작된 회중 찬양의 역사를 아는 것은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엿볼 수 있으므로 겸손한 예배의 자세를 배울 뿐 아니라, 과거의 불균형 또는 과잉반응 등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게 해주고, 회중 찬양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Kauflin, 2019:1-2). 즉,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찬양의 역사와 그 안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엿보는 것은 현대의 예배찬양이 앓고 있는 신학적 갈등들의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토대를 위해 필히 논해야 하는 과정이며, 더욱 더 빠르게 변해가는 다음세대의 찬양 음악의 방향에 성경적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예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연구인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성경과 역사의 범위의 광대함과 지면의 한계로 성경에 나타난 예배 찬양의 핵심적 원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간략한 회중찬양의 흐름을 1950년 이후 현대찬양의 발전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CCM(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의 신학적 배경과 역사적 조망의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 1. 예배 찬양에 대한 성경적 조망

예배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회중찬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량이 적고 구체적이지 않아 기독교 음악인들과 신학자들은 수많은 상상을 바탕으로 적용시켜왔다. 필자는 예배 찬양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은 음악 장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원칙이다. 필자는 필자의 소논문 「신앙과 예술: 기독교 예술의 성경적 이해」에서 “성경에 나타난 전반적인 예술의 양상을 관찰하면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예술 형식이나 스타일이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서나영, 2019: 3). 성경 안 예술 장르와 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이 주장은 예배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회중 찬양의 성경적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현대의 회중음악이 신학과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의 시작은 아마도 음악의 장르에서일 것이다.<sup>1)</sup>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등장하는 교회 안 회중 찬양의 세 가지 장르인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음악적으로 구체적인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예수의 탄생(눅 1:46-55), 스가랴의 노래(눅 1:67-79), 천사의 노래(눅 2:14) 등 성경이 보여준 찬송의 예로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 음악은 “사회적이고, 회중이며, 아마추어” 노래임을 유추할 수 있다(Ryken, 2005: 51). 이와는 달리 구약성경의 성전 예배 음악은(대하 5:11-14) 솔로몬이

1) 현대의 회중음악이 신학과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의 시작은 아마도 음악의 장르에서일 것이다. 음악의 미학적 정의는 서양철학에서 발달한 것으로, 예술 형식중 하나이며 문화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간과 소리의 예술이다. 전통 서양의 화성음악에서는 선율과 화성을 다스리는 음의 높낮이와, 템포와 시간에 관련된 리듬, 소리의 부드러움과 질감이 포함되는 음색 등의 요소들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지만, 역사를 지나며 다양한 스타일과 유형의 음악은 이러한 요소 중 일부를 강조하거나 또는 생략 할 수 있으며, 텍스트와 악기 시각적 공연 또는 영상과 결합하기도 하여 그 범위가 광대하다. 역사를 지나며 몇몇 새로운 형식이나 음악 스타일은 음악의 범주에 들 수 없다는 비판 받았고, 20세기 작곡가인 존 케이지(John Cage)는 어떤 소리라도 음악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문화 또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음악의 창작, 공연, 강조점 및 정의가 달라 음악이 될 수 있는 경계선과 본질을 논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히치콕은 음악을 크게 두 가지의 성질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대중음악 혹은 민속음악 등의 서민음악과, 두 번째는 이와 대조되는 서양의 고전 클래식 음악, 혹은 정교한(cultivated) 음악 등의 음악 예술이다. 예술적 음악의 좁은 의미로 서양의 고전적 전통으로부터 온 기술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음악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이 두 분류의 음악을 모두 포함한다. 대중음악 중에서도 높은 예술적 기능을 요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음악 예술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다.

헌당예배를 드릴 때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시 봉헌예배 때 연주된 규모가 큰 찬양대와 전문적인 악기연주자들의 예배 음악이 묘사되어 있으며,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숙련된 음악가들의 예배음악임을 유추할 수 있다(대상 15:16, 22; 25:7; 시 33). 성경 안의 예배 찬양은 가사가 없는 기악 음악,<sup>2)</sup>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등의 다양한 악기 음악(시 98:5-6; 150:1-6), 가사와 악기가 함께 연주되는 회중의 예배 음악(삼상 10:5-6), 미리암의 찬양과 같은 즉흥음악(출 15) 등이 회중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의 음악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성경은 회중이 예배함에 있어 다양한 예술적 장르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음악적 스타일이 성경적 진리나 교리를 구현하는 것에 제한받지 않음을 증명한다.

두 번째 예배의 회중 찬양의 원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구약의 예배 음악은 창조주이시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었다(대하 15; 시 33). 또한 신약의 초대 교회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찬송가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그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노래하고, 누가복음 1-2장에 묘사된 마리아와 사가랴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찬양이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의 천상의 예배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예수 그리스도)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하며, 바울서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어진 다양한 시적 인용문이 들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를 초기 기독교 찬송가로 간주한다(빌 2: 6-11, 롬 11: 36, 골 1: 15-20, 딤후 3: 16)(Kaufman, 2019: 4).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찬양과 함께 신약성경에 나타난 회중 찬양의 또 다른 특징은 '성령의 현존'이다. 에베소서 5 :17-19 절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는 성령의 넘치는 일임을 분명히 암시한다. 회중 찬양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빌 3: 3). 그리스도인들의 회중찬양 중 불신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고 서술되어 있으며(고전 14: 25), 그 이유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마 18:20)"는 말씀처럼 성령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현대의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재해석되며 예배 신학과 찬송가의 가사에도 많은 변화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찬양의 근본적 목적은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선율과 리듬 등 음악적 요소를 입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안식의 개념이 아닌, 완성된 예배의 모습은 이를 명확하게 말해준다(계 7: 9-17). 요한은 그의 종말의 환상 중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들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고백한다. 즉, 악기의 종류, 음악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구속사역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 찬양의 본질인 것이다.

예배 찬양에 관한 성경의 세 번째 원칙은 '마음의 경건'에 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 음악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음악은 남용되어질 수 있고 오용되어질 수 있다는

2) 시편에 자주 표기된 "셀라"는 노래를 쉴 동안 기악파트의 연주를 뜻한다. 교회음악은 기악 찬양의 부재의 역사를 거치면서 기악음악은 자주 교회 역사에서 오해되고 무시되거나 찬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성악 찬양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Hustad, 1993: 149), 맥किन(James McKinnon)은 그 이유를 연구하며 이교도들의 악기에 집중하던 음악적 관습도 포함 된다고 주장한다(McKinnon, 1987: 1).

사실이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창조되고 연주되거나 불러지는 음악도 이 타락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예술도 죄와 타락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선지자 아모스는 “노랫소리를 그치라(암 5:23-24)”며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음악의 남용과 함께 경고하고 이 오용되는 음악은 술과 방탕한 인간의 죄와 함께 타락한 것으로 선포되기도 한다(암 6:4-5). 이사야 5장 11-12은 술 취한 방종한 사람들, 즉 죄인들의 음악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합당한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된 선물이며, 예배하는 것에 쓰여지는 강력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우상숭배의 습관과 죄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가사도 악할 수 있고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결국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엡 5:19)” 라고 기록하며, 마음의 문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성령이 함께하시는 합당한 회중 찬양은 마음의 경건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의 회중 찬양은 자유로운 스타일과 장르를 인정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반복적으로 모여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예수가 머리되신 교회를 이루는 그의 지체들의 마땅히 행할 것이었으며(골 3:16), 성경에 나타난 예술 행위 중 가장 큰 비중으로 기악 음악과 시가 만나 찬송의 표본을 보여주는 장편의 찬양이 담긴 시편은 예배 안 찬양의 중요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중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구름이 나타났고(대하 5:11-14) 찬양 속에 그는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며(시 16:11), 인간의 “영혼을 훈계”하고(시 16:7) “흔들리지 아니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도록”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시 16:8-9).

## 2. 현대 예배 찬양에 대한 역사적 조망

포크너(Quentin Faulkner)에 따르면, 초기 사도 교회의 음악 유산은 중동 유대인의 문화 음악이었다(Faulkner 1996: 52-3, Evans 2006: 25. CF. McKinnon 1990: 68-72). 그리고 에반스(Mark Evans)는 이 초기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기원전 4세기에 발전된 헬레니즘 양식과 통합된 이교도의 음악 관습과 문화에 둘러싸여 있음을 지적했다(Evans 2006: 25). 유대인 중심의 교회의 음악 문화와 주변의 이교도 문화 사이의 긴장은 교황청에 의해 전례 없는 분리 작업이 시도되었으며 그들이 만들 신성한 음악의 법칙을 지키려 끊임없는 긴장 속에 노력했다(Evans, 2006: 25). 따라서 기독교 교회의 시작부터 중세까지, 세속적인 사람들에 의한 신성한 음악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중의 참여를 줄이기 시작하였다.

기독교 교회 초기에는 예배 음악이 주로 보컬 찬양이었고 찬송가는 성서의 텍스트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2-3세기경 이단과의 싸움에서 찬송의 텍스트 안의 신학을 지키려 노력하였고, 이교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배 안 음악적 내용과 참여가 점차 규제되어 4세기 경에는 공식적인 찬송가가 제정되었으며 이 찬송가는 승인된 그룹 안의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Marti 2013: 10). 시간이 흘러 음악 표기법의 발전에 힘입어 10세기 경에는 로마 카톨릭 미사(Mass)의 노래는 성직자의 음악적 소양적인 부분으로 제한되었다(Evans 2006: 27). 성스럽다고 여겨진 라틴어로만 찬양이 가능했고 7세기에 발전한 그레고리안 찬트(Gregorian Chant)로부터 시작된 복잡하고 이질적인 성가의 발전으로 교회 음악은 회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복잡한 성부와 선율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구현하고 있었다. 이에 회중 찬

양은 쇠퇴하였고 서민들은 캐롤(Carol)이나 중세드라마, 민요 중심의 노래가 발전하고 있었다.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는 신학적 개혁과 함께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예배 관습을 폐지하고 회중이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경험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는 쉽고 민속적인 선율에 자국어 텍스트를 넣어 회중 찬송을 부활시켰고, 동시대 개혁자인 칼빈(John Calvin)과 회중 찬송가를 장려하였으나 무반주로 서서 부르는 식의 제한을 두었으며, 쾰링(Ulich Zwingli)은 예배 안 회중 찬송을 금지하고 일상의 경건 생활에서 찬송할 것을 장려하였다(Nekola 2009: 59). 이 개혁자들의 찬송 개혁은 문화적 모국어와 선율로 연결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예배 중 회중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문화와 예배 음악과의 만남은 종교개혁과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술의 영향력만큼 큰 것이었다. 17세기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은 이 문화적 힘을 두려워하여 찬송가를 제한하고 오로지 시편을 부를 것을 주장하여 시편가집을 출판하였다. 그들은 적당한 운율과 너무 서정적이지 않은 진지한 선율과 함께 시편을 불렀고, 회중 찬송은 쇠퇴하는 듯 하였으나 백스터(Richard Baxter), 번연(John Bunyan), 스테넷(John Sternett) 등의 신학자들은 개인의 묵상과 경건을 위해 기도시를 지었고, 이것은 후의 찬송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7세기 말 왓츠(Isaac Watts)의 찬송가 개혁으로 아름다운 멜로디와 감성적 표현이 담긴 쉬운 회중 찬송가가 발전되고, 웨슬리(Charles Wesley)가 그 뒤를 이어 18세기 찬송가의 도약을 이뤘다. 19세기에 들어와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속적 회중찬송이 발전하며 릿지(Cane Ridge)의 캠프 미팅(Camp Meeting) 부흥 집회를 시작으로 회중 찬송은 새로운 복음송(Gospel Song) 발전을 시작했다. 이후 무디(D.L. Moody)의 부흥운동은 그의 팀 찬양사역자 생키(Ian Sankey), 맵인 작곡자 크로스비(Fanny Crosby) 등의 복음송 작곡가의 공헌으로 기독교 회중 찬양은 대중음악의 대명사가 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아주사거리의 성령 부흥운동으로 인해 회중 찬양 중 성령의 역사가 주목을 받게 된다. 전문 기독교 가수의 출현으로 보컬 그룹들은 복음송을 대중화시켰고, 레코드, 악보, 라디오 사업의 영향으로 기독교 음악 산업에 큰 발전을 야기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대중과의 융합을 우려하고 오히려 대중문화에 기독교 문화가 선한 영향을 끼치길 기대했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주며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전세계로 회중 찬양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Duane Oldfield 1996: 49-50). 쉽고 대중문화와 이질감이 없는 예배 찬양 문화는 복음 전도와 문화 선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자본주의와 그 외 반기독교적 문화의 산물들까지 걸러내지는 못하였다.

1960년대 후반 예수 운동(Jesus Movement)의 시작으로 지금 현대의 예배 운동으로 발전되게 된다. 예수 운동을 시작으로 락앤롤(Rock & Roll)의 시작으로 기독교 히피족이 생겨나고, 그로부터 시작된 CCM(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의 스타일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드 록(Hard Rock), 소프트 록(Soft Rock), 펑크 록, 헤비 메탈, 펑크, 블랙 가스펠(Black Gospel), 힙합(Hip-Hop), 및 인디(Indie Music) 같은 장르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초기 CCM 가수들은 대중적인 복음송이 대중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길을 열었고, 대중문화와 이질감이 없는 음악으로 문화선교의 장을 열었다. 기독교 음반계의 슈퍼스타가 생기고 기독교 소비자들이 시장을 구축하여 CCM 생산 및 발전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젊은 기독교인 층을 중심으로 캠퍼스 찬양 축제 또는 집회가 생겨나고 세속적 대중음악과 평행한 것으로, 대중적인 복음주의 매체의 상업적 성공과 기독교 서점의 발전, 교회성장

운동으로 인한 대형교회 출현 등의 시대적 양상과 함께 회중 찬양은 기존의 전통 예배음악과 공존하며 더욱더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다(Turner, 200).

한국의 경우, 미국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이래 미국의 대중문화와 융합된 기독교 음악과 예배 문화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한국만의 예배 찬양 운동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시인과 촌장, 다윗과 요나단 같은 복음송 가수의 출현과 90년대 소리엘, 좋은씨앗 등의 악보와 음반 산업의 발전으로 한국의 CCM 문화를 만들었고, 그들의 영향으로 예배 음악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며 드럼과 일렉 기타의 사용을 금지하던 보수주의 교회들도 결국 젊은 층의 문화를 인정하고 CCM 문화를 수용했다. 한국의 기본적 예배 음악 스타일의 양상은 미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으며, 세계적인 찬양집회 팀인 힐송(Hillsong Music)과 빈야드(Vineyard)의 출현으로 예수전도단의 캠퍼스 워십 집회 이후 컨티넨탈 싱어즈, 온누리 워십, 등 수많은 예배 찬양 전문팀이 활약하였다. 동시에 CCM에 국악 악기의 사용을 융합시키고 한국 정서에 맞는 리듬과 선율로 수정하여 민족적 찬양을 하려는 노력과, 전통 서양 음악에 바탕한 고전음악 양식의 성가와 찬송가의 교육과 유지의 노력 또한 공존한다. 기독교 서점과 음반사업의 발전으로 찬양인도자 학교들과 예배인도자 컨퍼런스등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었고, CBS, CTS, Good TV, CNTV 등의 기독교 방송국이 생겨나고 유튜브(Youtube)의 발전으로 각 지역교회의 찬양팀 또는 연합 사역팀의 예배 찬양과 공유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순수음악의 쇠퇴와 전통음악예배의 쇠퇴로 인해 많은 신학교들은 전통음악을 논하는 대신 실용음악을 가르치고 밴드의 조화를 논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음원의 유통이 쉬워짐에 따라 음반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기독교 전문 직업 CCM 가수들의 시장이 다소 쇠퇴함으로 인해 음악적 재능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의 대중음악가로 다수 전향하는 기독교인 대중가수들은 예배찬양문화와 대중문화의 격차를 점점 좁혀가고 있다.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오던 보수 신학을 고수하는 교회와 학교들조차 '오직 성경'에 입각한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무색할만큼 그들의 예배 안에 대중문화와 음악 가진 많은 요소들을 받아들였다. 화이트가 장담했듯, 앞으로 예배 찬양 음악은 계속 변화할 것인데 한국 교회는 과연 이 분야에 성경적 신학적 분별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심각하고도 깊이 다뤄져야 한다.

### III. 대중문화와 CCM, 그리고 예배

로마노프스키(William D. Romanowski)는 대중문화의 중심은 대중예술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문화신학자 신국원은 현재 한국 교회의 예배 찬양 음악과 문화는 대중예술을 중심으로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는 대중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무관심의 양상을 띠고 있고 지적했다(신국원, 2004: 30-31). 많은 기독교 음악과 아이디어 또는 상징들이 대중문화의 스펙트럼을 통해 발견되고 있지만, 기독교와 대중음악 사이의 관계는 다소 연구가 부족한 분야이다. 필자는 본 장에서 대중문화 수용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옹호가 아닌 관심과 분별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에 대중문화와 예술이 예배에 미치는 영향을 옹호하는 입장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 안의 반기독교적 문화의 요소들을 지적하여 현대 예배 찬양의 성경적 방향과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현대 예배 찬양 장르에 대한 신학적 관점들

그릴리(Andrew Greeley), 존스톤(Robert Johnston), 또는 로마노프스키(William D. Romanowski) 등의 현대 신학자들은 일반은총론에 입각하여 대중문화의 순기능을 살피고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대중문화 옹호론을 주장하였다. 마이어스(Kenneth A. Meyers)와 같이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기독교 관점들이 견고하지만, 최근 현대 예배 음악학의 발전으로 인해 대중음악과 그 문화 안의 성스럽거나 선한 것을 함께 찾아 세속적인 부분의 비판과 함께 이루어지는 담론들이 발전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의 옹호론에 입각하여 현대 예배 음악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신학적 관점으로 연구하고 적용한 몇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베르그(Marcus Moberg)는 헤비메탈(Heavy Metal) 음악에 관한 그의 소논문에서 메탈 음악이 처음 등장했을 때 기독교 학자들은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적 퇴폐 현상이라고 비판했음을 밝혔다(Moberg, 2017: 223). 1960-70년대에 발전한 헤비메탈은 대중음악 문화에서 끊임없이 사랑받고 연주된 음악의 장르로, 모베르그는 거칠고 어둡고 지르는 방식의 보컬 기법으로 구현으로 음악으로 한때는 '사탄의 음악'이라 불린 메탈과 기독교예배의 역사를 연구했다(Moberg, 2017: 223-31) 메탈의 역사 속에 많은 비판과 기독교 사용을 신중이 분석한 후, 이 메탈의 강한 음들이 기독교 신학 또는 신앙의 텍스트를 전하는 반주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해 삶이 변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실반(Robin Silvan, 2002: 163-164)의 글들을 인용하여 신학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지지했다.

마쉬(Clive Marsh)는 팝(Pop)과 록(Rock) 음악의 기독교적 관점을 연구했는데, 고전음악과 반대 개념인 가볍고 서정적인 팝 음악과 좀 더 심각하고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며 순간의 강조로 일종의 초월성을 즐기는 음악인 록음악의 대중성과 교회 안 예배에서의 사용을 논했다. 마쉬는 기독교 밴드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유임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과 함께 발전한 개인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의 이 두 장르는 이미 대중문화를 강타했고 그들의 음악적 언어를 사용하여 예배하는 것은 교회가 문화적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 이 음악들과 예배의 관련성에 대하여 긍정적 측면과 견제해야 할 측면을 깊이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829). 또한 아브라함(Inrahim Abraham)과 스테바르트(Francis Stewart)는 기독교 펑크(Punk)와 하드코어(Hardcore) 음악과 기독교 예배 음악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펑크음악은 불협화음이 가득한 빠르고 에너지 넘치는 익살스러운 사운드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에 대한 반항심을 표현한 대중음악 장르를 일컬으며 후에 펑크로부터 전문 음악성과 랩핑이 첨가되어 텍스트의 서정성이 첨가된 형식이 하드코어 음악이다. 아브라함과 스테바르트는 기독교 펑크가 현재 거의 모든 장르의 CCM에 널리 스며들어 있는 음악 스타일로 현대 예배 찬양 밴드의 연주방식에 널리 쓰이고 있는 음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대중문화에서 성공적인 반사회적 음악 장르가 기독교 음악과 연합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버그렌(Jason Berggre)의 "기독교는 펑크 스타일을 수용했고 인간의 음악이 아닌 단순히 하나님 백성의 음악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인용으로 결론지었다(Abraha and Stewart, 2017: 241-50).

패트리지(Christopher Patridge)는 아프리카 레게(Reggae)음악과 기독교 예배와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자메이카 라스타파리(Rastafari)에서 시작된 예배 음악으로 대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전 세계에 사랑받는 음악 장르로 자리잡았음을 강조함과 함께, 역으로 기독교 배경의 아프리카 음악이 대중문화에서 주류 음악 장르가 된 역사와 기독교 예배 음악과 상



호작용하며 주고받은 영향의 관계를 연구했다(Patridge, 2017: 251-59) 로버츠(Vaughan S. Roberts)는 포크(folk)음악의 정의와 통상적 스타일을 규명하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해 대중음악의 한 음악장르 역할과 이 음악의 민족성과 교회 안에서의 사용에 대해 연구하였으며(Roberts, 2017: 260-68), 에드워즈(Leigh H. Edwards)는 컨트리 음악(Country Music)이 미국 서부의 백인 노동자들의 종교적이며 문화적인 내용을 나타냄으로 기독교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음악임을 주장했다(Edwards, 2017: 269-77).

존(Graham St John)은 EDM(Electronic Dance Music) 음악을 분석하여, 반복적이고 중독적인 비트와 전자 사운드로 이루어진 이 대중음악 장르가 클럽이나 대중문화 축제에서 다뤄질 때 함께 따라오는 부수적 요소들인 댄스, 사운드 엔지니어들, 시영상예술 등의 종합 예술임을 강조하며 이 음악과 문화의 기독교 예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했다(John, 2017: 278-85).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EDM 음악은 '진동(Vibe)'을 원리로 좀 더 생생하고 살아있는 느낌을 제공하여 기독교 예배 사용에서의 차별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 음악은 특별한 사운드와 울림이 영적인 진동을 일으켜 강하게 중독성 있는 장르로, 존은 이 음악의 영적 배경과 역사와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 서술하고, 최근 현대 대중음악을 주도하는 강력한 문화적 흐름임을 강조하여 기독교 예배 찬양과의 융합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반복되는 리듬과 패턴이 창조의 원리와 동일한 계절, 시간, 요일 등의 일정한 시간의 반복인 것과 신체와 우주의 리듬과의 유비를 설명하여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의 음악이 되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였다(John, 2017: 278-85). 그밖에 치트햄(David Cheetham)은 블루스(Blues)와 재즈(Jazz)음악과 기독교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연구하여 역사적 배경과 즉흥음악의 신학적 토론을 중심으로 현대의 새로운 긍정적 관점을 소개하고(Cheetham, 2017: 286-93) 패트리지는 사이키델릭(Psychedelic) 음악의 영적 배경과 현상에 대해 기독교 관점으로 연구하였으며, 윈스터스(Joseph Winsters)는 랩(Rap)과 힙합(Hip Hop) 음악의 역사와 그 대중적 파급력에 대해 연구하여 기독교와의 연계성에 대해 사유하였다(Winsters, 2017: 306-15).

이렇게 새로운 대중음악 장르의 예배 음악을 그 수용성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신중하게 연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루터의 회중찬송가도 그 당시에는 그 나라의 민속적 멜로디와 자국어 가사를 사용해 획기적이고 생소했던 음악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초기교회의 찬양도 이교도의 영향을 받아 융합된 음악임을 인지할 때, 이 새로운 예배 음악의 세속과의 융합은 충분히 연구되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수많은 교회음악 악보들은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를 위한 문서들이지만 현재 젊은이들의 예배 찬양을 이끄는 찬양밴드의 음악은 그들의 삶 가운데 실존하는 것으로 문서들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 다양성 범위의 광대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예수운동과 아주사 부흥운동, 무디의 부흥집회에서 일어났던 찬양 속의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인 선교효과와 함께 복음송의 대중화를 일으켰고 세상의 대중문화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많은 경로로 그 영향을 주고받았다. 많은 부작용을 낳았지만, 로마노프스키의 주장처럼 대중예술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할 때 그 세상이 기독교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지며, 대중문화에 대한 단순한 도덕주의적 비판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통합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Romanovski, 2002: 136-154). 이에 필자는 음악적 생소함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의 자세나 순기능을 중심으로 옹호하는 입장이 아닌, 교회 음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하심을 연구하고 통합적인 신학적 교리들을 적용하여 차별력 있는 수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2. 대중문화와 CCM, 그리고 예배

그렇다면 과연 CCM이란 무엇인가? 1990년대 후반, GMA(Gospel Music Association)는 복음송 또는 CCM을 역사적으로 정통 기독교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가사, 또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표현의 가사, 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개인 간증에 대한 가사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모든 스타일의 음악으로 연주되어 불리는 것으로 정의하였다(Powell 2002: 12). 이에 포웰(Mark Allen Powell)은, “현대 기독교 음악은 이 음악의 팬들이 본인들이 기독교라고 간주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호소하는 음악이다(Powell, 2002: 12)”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CCM은 이 정의의 간결함으로 끝나지 않았다.

CCM 전문 가수와 그룹이 생겨나며 음반사업은 성공적이었고 1990년대의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중 문화의 주요 매체였던 음반 사업, CCM 음악 축제, 콘서트, 전자악기 사업, 악보 출판 사업 등이 큰 자본시장을 공략했고 CCM 산업도 물질만능주의의 시대적 이데올로기를 피하지 못하였다. 자본을 늘리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 전문 CCM 가수들을 육성하고 팀을 만들며 세상의 사업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은 접근으로 사업을 넓혀갔다. 더욱이 미국의 교회성장운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한국은 교회성장에 주력을 다했다. 결과로 대형교회들이 생겨나고 이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것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예배 찬양으로 문화적으로 세상과 이질감 없는 예배 문화를 공략해 선교와 부흥을 이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현대인들은 개개인 자신에게 다가오는 의미를 중시하는 문화로,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의 신학적 진리의 중요성보다 자신의 마음이 열리는 예배 분위기에 의해 교회를 결정하는 시대적 풍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현대 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결정하는 핵심 사역인 예배 찬양 문화가 은혜중심의 체제가 아닌 실력 위주의 인재를 세우고, 예배 밴드 안에 성동의 순종과 경건보다는 경제적 또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 여기고, 영성의 본질보다 모양에 중점을 두기 쉬운 구조로, 시대가 가지고 있는 반기독교적일 수 있는 세계관들인 물질만능주의, 심미주의, 세속주의, 실용주의 등에 치우치기 쉽다는 지적을 하는 바이다. 더욱이 음악 스타일 자체의 깊은 뿌리에 허무주의(Nihilism)의 모양이 남아있을 수 있으며, 예술적 아름다움을 신학적 본질보다 강조하게 되는 탐미주의(Aestheticism)의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는 CCM과 예배 찬양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변혁시켜야 할까?

실제로 CCM에 관한 많은 신학적 논쟁은 예배 찬양자와 그룹이, 또는 CCM 가수와 그룹이 그들의 주변 세계와 어떻게 상호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하워드(Jay R. Howard)와 스트렉(John M. Streck)은 기독교 음악 산업이 역사적으로 신앙, 예술,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간의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따라 CCM을 분류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Young, 2017: 101-11). 첫 번째 접근법은 ‘분리적(Separational)’ 방법으로 CCM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독교 교리와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사용된다는 주장에 따라 움직였다. 두 번째 접근법은 ‘통합적(Integrational)’ 방법으로 CCM이 일반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지지한다. 이 기독교 음악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대중들에게 대중매체를 통해 전하는 기독교 연예인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변형적(Transformational)’ 방법으로 기독교 음악인들은 음악을 하나님의 문화 대

리인으로 대중과 세속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인정한다. 이 음악인들은 음악을 단순히 교회 안 예배 또는 문화선교를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메시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음악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즐거울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에게 기독교 메시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여겨지는 것으로 부수적인 것이다.

대중적인 CCM과 이를 예배에 사용하는 현대 교회의 양상은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또 다른 갈등과 위기를 직면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성의 양상은 지구반대편에서도 동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며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남겨 참여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열어 온 세계의 대중문화와 CCM을 접하고 단기간에 모방 가능한 시대를 열었다. 최근 미국의 플래닛쉐이커즈(Planetshakers) 전문 찬양 단체의 성공과 2018년도 내한공연으로 EDM 찬양 음악은 한국 젊은이들의 찬양 집회나 예배에 사용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감정적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것에 최고의 곡들로 간주되고 있다. 간주 부분이 멜로디가 없는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대체되고 헤드뱅잉(Head Banging)과 함께 사운드를 즐기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와 젊은 층의 기독교인들에게 퍼져나가는 찬양 문화양상의 한 부분이다. 이 음악은 레이저 빔과 획기적인 시각적 영상을 동반하며 대중문화 EDM 음악인들의 복장과 외관 또한 카피하기도 한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예배 찬양에는 EDM, 힙합, 래핑 등의 다양한 대중음악 성격의 곡들이 댄스와 함께 불려지고 있고 유튜브로 인한 찬양문화의 확산은 앞으로 더욱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예배관을 훌륭히 고수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예배 찬양 문화와 대중문화의 융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큰 위기와 갈등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니버(Richard Niebur)의 기독교와 문화의 다섯 가지 역사적 관점<sup>3)</sup> 중 예배 찬양은 문화적으로 크게 유연하였음을 인정하고 성경에 바탕한 견고한 예배찬양 문화관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 3. 현대 예배 찬양의 성경적 방향 고찰

필자는 대중음악의 스타일을 널리 수용한 현대의 기독교 교회의 CCM 찬양은 그 음악이 가진 배경과 문화적 부산물들까지 받아들였음을 인정하고 현대 예배 찬양이 분별해야 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지적하여 분별에 대한 기준 또는 원칙을 이론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 장에서 언급한 예배 찬양의 세 가지 성경적 원칙과 역사적 조망 속에 찬양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토대로, 대중문화와 융합된 CCM을 사용하는 예배 찬양 음악과 문화의 성경적 방향에 대한 네 가지 이론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한국 교회는 예배 찬양 안에 음악으로 문화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우선순위로 두지 말아야 한다. 음악스타일로 시작하지 말고 성경의 공통된 내용과 그 텍스트의 신학적 견고함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성경적 진리의 내용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음악은

---

3) 니버(Richard Niebuhr)가 그의 책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분류한 ‘문화와 기독교’에 대한 다섯 가지 역사적인 관점은 (1) ‘문화에 반대하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대한 단순한 거부, (2) 교회가 지배적인 문화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문화의 그리스도’ 관점, (3) ‘문화 위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열망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사회를 끌어 오신다는 믿음, (4) ‘역설 속의 그리스도와 문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와 문화의 요구 사이에서 영구하지만 회망하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루터교의 위치) (5) 문화는 문화가 전복된 인간 본성과 교회를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계의 불빛으로 비추는 것으로 보는 ‘문화 변혁자’이다. 이 다섯 가지 문화관은 모두 성경을 근거로 펼친 주장으로, 필자는 역사의 문화와 예술의 상황, 그 안의 개별적 분야, 시대에 따라 강조되어야 하는 세계관이 달라짐을 관찰하였다.

성경에 의해 비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 장르의 대중음악 스타일은 이미 전 세계의 공통어임을 인지하고, 스타일의 문제가 아닌 음악 테스트 내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현대 예배 음악 밴드와 보컬 팀의 연주는 많은 연습으로 서로의 호흡과 리듬을 맞추어야 하는 성향의 음악들이기 때문에 음악적 전문성과 그루브 표현, 보컬과 악기들의 조화로운 연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나 찬양은 신학 그 자체임을 인지하고 연주하는 찬양의 신학적 의미와 중요성을 진지한 자세로 점검해야 한다. 그 다음 음악을 더하는 것이 미래의 한국 예배 찬양 문화를 세우는 첫 번째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기독교 음악과 예배 음악을 구분해야 한다. 예배 찬양은 회중위주의 찬양이어야 한다. 종교개혁의 선상에 위치한 현재의 교회는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시켰던 회중의 찬송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퍼포먼스(Performance) 위주의 보컬과 악기연주의 CCM은 대중적 상업적 용도의 문화선교 목적의 음악으로 간주하고, 회중 예배를 위한 찬양곡은 찬송가를 포함하여 회중이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와 리듬,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교리적 가사를 가진 곡으로 분리해서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는 음악의 문화적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구분하여 회중을 위한 찬양을 선곡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회중 찬양의 보컬과 악기연주자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능력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회중의 목소리가 들리며 회중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CCM 음반들은 가수들의 음악적 개성을 살려 뛰어난 악기 세션 연주와 함께 타고난 음악성에 초점을 두지만, 회중 찬양 인도는 이와는 반대로 음악적 아름다움이 회중의 찬양과 집중된 마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예배 찬양은 각 악기와 보컬이 우선순위로 겸손을 표현하고 그 다음 음악적 룰을 맞출 때 그 예술성이 가장 높아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문화와 기독교 예배 찬양은 서로 불편을 겪어야 한다. 문화적 흐름이 이 시대 선교에 중요하지만 성경 앞에 귀중한 것을 포기할 때, 개혁주의 예배의 문화는 더욱 더 견고해질 것이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영적 세력을 인정하고 그 어두움의 세력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성경으로 걸러내어 사용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훈련 과정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배 찬양 팀원 개개인의 경건생활에 관한 훈련과 기준, 찬양 곡의 음악과 작곡가 또는 텍스트의 배경 점검, 성경이 배격하는 현대 사상들을 정리하여 팀원들의 삶과 예배에 적용 등 섬세하고 올바른 찬양팀 문화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회의 예배 찬양은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는 크리스찬 문화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령의 임재는 전 세계 문화를 포용함(계 7)을 기억함과 함께, 영적으로 연결된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민족성을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 민족적 찬송은 한 민족의 역사와 민족성을 이해하여 더 높은 예배 안 연합을 조장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족적 찬양은 문화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교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단일 문화의(monocultural) 찬양이 아닌 기독교 역사의 문화, 하늘의 시민권의 문화, 현재 변해가는 사회의 문화, 전 세계의 문화(전 인류적 이해)를 열고 예배해야 한다.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선교적 계획을 이해해야 함과 동시에, 각 지역교회의 문화적, 신학적, 목회적 사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예배 부서의 비전과 성격을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여 그 안에 만들어지는 긴장감을 통해 역사하시고 화해시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 자신이 속한 예배 안의

찬양 문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축복받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 IV. 나가는 말

타락한 '대중문화'와 'CCM'이 융합되어 발전한 예배 찬양의 역사와 음악 장르들에 대한 성경적 성찰이 이 시대에 왜 중요한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세상 문화 속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예배의 많은 비중에서 음악을 대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현대 예배에 충만한 CCM의 성격과 문화적 영향의 분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간과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으며 무지로 인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성경은 음악 장르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찬양을 가르치고 있다. 역사를 지나며 기독교 예배 안의 찬양의 요소는 불변하였지만 그 스타일과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했으며 그 변화가 꼭 필요했음을 보기도 하고 잘못된 찬양 속에 어두움을 해매었던 장면도 엿본다. 현대 예배 찬양은 다시 한 번 성경적 개혁이 필요하며, 음악적 스타일의 문제가 아닌 찬양의 텍스트와 위치를 신학 자체로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요구된다. 필자는 세속 문화와 끊임없이 융합된 예배 음악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 예배 찬양 음악과 문화가 무엇이 위험하고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지 작지만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어보았다. 또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중문화와 CCM의 관계적 양상을 이해하고 이것을 예배와 연관하여 어떤 분리가 필요한지, 현대 기독교인들이 문화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자세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찬양 속에 기뻐하시고(스 3:17) 영광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길에 더 가까이 갔기를 소망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수많은 연구들이 조속히 나올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